

## 美術大學教育의 現況과 展望

金 燦 植

(弘益大 美術大學長)

### I

大學에서의 美術教育은 그 本質을 규명하는 각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人間形成으로서의 美術教育이란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美術家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專門教育이란 관점이다. 이런 양자의 觀點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으나 美術大學에서 행해야 할 교육의 방향은 먼저 미술교육을 통한 人間形成의 根本原理를 美的 體驗을 통해서 미술가적 품성을 기르겠다는 것이고, 또한 사람은 우선 人格의인 바탕 위에서 형성되어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표현되는 미술만이 참다운 미술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創作의 原動力은 自覺되어지는 人間의 삶이고 그 삶이 人格에 수반되어야만 올바른 作家觀을 가진 人格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곧 大學 美術教育의 중요한 本質이자 課題가 되는 것이다.

創作活動은 영혼과 우주적인 필요의 본질이다. 따라서 창작활동은 조형의 요소나 원리 그리고 적절한 素材의 선택과 技法의 개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제작과정을 중시하여 실험적인 체험을 토대로 독립된 작가로서의 수준높은 創作 能力의 배양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미술대학교육의

근본적인 토대를 美術家的 人格교육과 發展的 作家教育에 두고, 이를 조화·통합하여 人間形成의 길을 더듬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進歩主義 教育이 문화의 창조라는 原理 아래서 특히 創造性이라는 目標에 기반을 둔 美術教育에 있어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現況問題의 提起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성을 근본으로 한 美術教育의 土着化가 시급하다 하겠다.

### II

土着化라는 것은 그것이 전통적 혹은 在來的인 要素들로부터라기 보다는 西歐의인 요소들의 불가피한 수용상황, 그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個性의인 발전의 한 양식인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近代化란 대부분의 경우에 西歐의인 것의 傳來로부터 형성되며 복잡한 國際政治的 변화에 따른 產物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問題는 美術이라는 本質을 理解하는 데 있으며, 서구 현대미술의 형성과 그 배경이 우리의 그것과는 本質的인 面에 있어서 相異點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본질적인 相異는 결국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발전단계의 복합적인 여건 아래 형성된다는 원리와 이러한 變數들이 作用하는

深度의 차이 때문에 우리의 경우 미술교육의 士 着化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여기서 現代美術의 背景과 形成에 대해서 자세히 論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外部要因과 그에 따른 社會的 變化에 기인하는 人間思考의 變질이라는 內的 要因에 의한 새로운 造形에로의 모험과 새로운 美學의 대두, 나아가 새로운 人間환경의 形成이라는 原理 밑에 精神的 物質的인 變질에 따르는 필연적인 要求로부터의 形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 分業과 專門化라는 概念 아래 調和 있는 統合으로의 再編成코자 하는 美術教育의 과제는 새로운 조정영역의 平準한 탐구와 창조적 表現활동의 自發的인 체험으로 主觀이 확립된 美術教育이 요청되어진다.

### Ⅲ

우리의 大學教育이 終局으로는 대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國家社會와 연결, 불변하는 가치를 찾아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라면, 그 方法的인 手段은 教育과 研究일 것이고 오늘날의 教育理念에 비추어 보나 現在狀況에 비추어 보나 自主的인 創造의 時代로서 自主意識 위에 教育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確信한다. 그렇기 때문에 政策的인 面이나 原理에 있어서 問題視되어야 하고 또한 改善되어야 할 事項을 열거함으로써 現況 진단에 대처하고자 한다.

먼저, 美術의 본질에 관한 理解에 대해서는 대단히 편협한 思考方式을 갖고 있다. 즉 純粹 美術의 美學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美術教育者 혹은 미술을 전공하는 이들만의 것이라는 社會로부터의 외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問題는 美術教育의 本質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阻害하고 있으며 美術의 大衆化와 現代美術이 기여해야 할 人間情緒 靖화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다음은, 美術教育 혹은 造形教育 역시 美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造形에 대한 本質的인 이해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造形

教育으로서의 變질은 理想的 혹은 國家的 要求로부터 形成된다.

우리의 경우 미술 각 分野가 相互協力하여 造形의 基本으로서 造形教育을 履修하고 있는 경향이다. 여기서 서투른 教育이념에 관한 언급은 불가능하고 또한 우리 美術教育의 理念을 斷定하기보다는 오늘날의 美術教育의 系譜를 종합함으로써 앞으로의 研究에 새로운 契機가 될 것으로 믿는다.

美術教育의 계보는 크게 허버트 리이드에 이르는 創造主義 美術教育과, 독일의 뮤즈運動에서 바우하우스의 造形教育에 이르는 綜合造形主義의 美術教育과,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에 근거를 둔 生活美術教育의 흐름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리얼리즘의 흐름으로 大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美術教育의 根本을 形成하고 있는 것은 創造主義的 教育哲學이지만, 戰後 독일 바우하우스의 “新造形理論”의 理念은 전문교육으로서의 美術教育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다.

바우하우스 教育理念의 또 다른 측면은 戰後 황폐해진 독일의 부흥에 예술가의 힘으로 새로운 次元에서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이러한 理念의 現代的 發展이 오늘날의 世界各國 造形教育에 根本이 되어 있음을 볼 때, 그 移行過程을 評價 分析함으로써 우리들의 獨自的이고 創造的 教育理論에 대한 研究가 더욱 활발히 進行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教科內容의 편성은 교육성과에 至大 한 영향을 끼치는 바, 現행 우리의 大學 教科課程은 現재 大學들의 實情에 따른 積極적인 改革이 있어야 하겠다.

現在 우리들의 教科課程은 不斷한 社會變化和 時代的 要求에 따라 變化·改定되어 왔다. 이런 변화와 改定은 包括的인 검토와 一般的인 性質에 부합하는 合理的인 교수요목에 따라 進行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地畧적인 科目의 나열이 아니라 集約的인 배열을 통한 統合原理가 內包되어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과거로부터 施行되어 온 기초실기 수업을 효과적으로 細分化하고 理論科目을 기초실기와 함께 並行하여 실시함으로써 기초실기 수업의 妙를 살려볼 만하다. 여기에 附加해야

할 것은 各學科目에 대한 解釋差에서 오는 教育의 質的인 問題를 고려해야 하며 이것은 終局으로는 學生의 創意力을 개발하는 發展的인 結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美術教育의 特殊性에 비추어 볼 때, 敎科課程의 편성은 첫째 歷史主義的인 선정 방식을 견지하고, 둘째 理論主義와 心理主義의 結合式 순서를 취하여 어느 한쪽으로 편중하는 경향을 배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敎科課程에 있어서 現在 가장 問題視되고 있는 것은 關係學科간의 協力이다. 특히 有機的인 關係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서 音樂, 文學, 理工系列 등의 협력도 요청된다.

要約해서 強調한다면, 다소 論理의 비약이 있겠지만 敎과과정은 一元化되어야 하고 關係學科와의 有機的인 關係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기초학습과 전공별 학습과의 關係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외에 우리의 美術教育 風土속에서 나타나는 지엽적인 問題들 즉 入試의 問題, 指導方法, 行事의 問題(各種 公券展, 團體展, 校內展) 들도 敎育과 關係되어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지엽적인 問題들도 위에 열거한 問題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는 努力에 따라 自然的으로 解決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要는 우리의 美術教育은 自主的인 認識에서부터 비롯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IV

이상의 글에서 우리의 美術教育, 나아가 造形教育의 特殊性에 대해서 극히 概括的이나마 強調하였으며 앞으로의 展開 역시 이 特殊性의 根源的인 認識에서부터 비롯할 것이라고 強調한다. 그 외에도 단편적으로 해결해야 할 問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의 美術教育의 進路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展望의 예측보다는 問題해결의 方法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終局的으로는 이 美術教育에서 專門化에의 移行過程의 方法과 그것의 종합적인 敎育結果에 관한 것이 美術教育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高度 産業技術의 發達에 따라 專門化의 深化는 불가피한 것이고 이에 부수되는 美術教育의 論理的인 側面도 앞으로의 敎育이 直面하게 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우리들 모든 大學美術 敎育者들, 나아가 모든 造形人은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現在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넓은 안목과 思考方式으로 本來의 우리들이 擁有할 現在를 인식하고 우리의 敎育이 當面한 問題를 解決하는 데 努力해야 할 것이다. \*